

天·地·人으로 본 우리절 22곳

민속학자 조용헌 교수가 18년간 발품 팔아 꼽은 풍광 수려하고 호젓하며 고승 많이 머무른 곳



조용헌의 사찰기행 조용헌 지음 | 이가서 펴냄 | 1만6900원

사람은 번뇌를 없애고 '본래부처'를 찾기 위한 수행 장소이다. 그곳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의 사상이 녹아 있다. 사찰은 종교적 영험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또 사찰은 선지식이 깨달음을 얻었다고도 알려져 수행자들이 구름같이 몰리기도 한다.

사찰에는 수천 년이 넘게 이어져 오던 우리 조상들의 민속 신앙도 숨어 있다. 산신이 있고, 칠성이 있고, 용왕이 있다. 천 년이 넘는 고찰마다 그 절의 독특한 역사가 들어 있다.

이 책은 조용헌 교수(원광대 대학원)가 지난 18년 동안 발품을 팔아다니던 우리나라의 사찰 22곳을 소개하고 있다. 선운산 선운사, 모악산 금산사, 두성산 유선사, 금강산 건봉사, 북한산 승가사, 미륵산 사자사, 연암산 천장사, 오대산 상원사, 수봉산 흥련암 등.

이 책에 등장하는 22곳 사찰에는 천문(天文), 지리(地理), 인사(人事) 즉 삼재(三才)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에서 최초로 사주명리학을 강의하는 지은이 특유의 시선이 담겨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 책은 불교를 매개로 해서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한국의 민속신앙이 사찰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녹아 흐르는지를 불교민속학자의 시각으로 조명한 일종의 사찰 기행문집이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사찰의 3대 조건은 호젓하고, 고승이 많이 머무른 곳이어야 하며,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김제 만경 평야의 아스라한 지평선 끝자락에서 서해를 마주보고 있는 망해사를 가리켜 3대 조건을 충족시킨 사찰이라고 선포한다. 그래서 그는 "월급쟁이들이여, 한탄만 하지 말고 해질 무렵 장엄하게 붉은 빛이 감도는 바닷물을 보러 오라. 그 노을빛에 마음을 던져보라"고 속삭인다.

지은이에 따르면 스님들은 수행을 위해 자신에게 맞는 사찰을 찾거나 짓는다고 한다. 도선 국사는 불령산에 올라 목적지도 이정표도 없이 능선과 계곡을 뚫다. 그리고 마침내 상서로운 기운을 느끼며 7일동안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곳이 바로 청암사 수도암이다. 또 한국 선불교의 흥중조 경허 선사가 1년간 보려했다는 연암산 천장암도 명당중의 하나로 꼽힌다.

절터의 기운이 센 곳만을 좋아했다는 만해 스님이 한 때 머물렀던 금강산 건봉사는 풍운아 같은 만해 스님의 기질을 닮았다고 지은이는 소개한다. 건봉사가 대체적으로 골기가 어린 암산의 절이라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바위 투성이의 선 터에 자리잡은 금강산에 위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건봉사는 전문 수행자나 기가 센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수행자나 기가 센 사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터가 때론 민간신앙 역할을 할 때도 있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대표적인 흔적이 연못 자리에 절을 지은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민간신앙으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숭배해온 용(龍)에 있다는 것이다.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이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인데, 가뭄에 비를 내려주는 것은 상상의 동물인 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미륵산의 발원지인 익산 미륵사를 비롯해 김제 금산사, 경주 황룡사, 치악산 구룡사, 장흥의 보림사터 등 수많은 사찰들이 연못 자리에 지어졌다.

지은이는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도량도 소개한다. 일랑 묘관음사, 동리산 태안사 등이 바로 그것인데 바다에 절이 위치한 것은 주변이 탁 허져 마음이 트이며, 만물을 포용하는 포용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행의 방법인 해조음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한다. 타성에 젖을 때는 소리에 집중하는 수행이 효과적이므로 그 소리를 중에서 파도소리(해조음)가 좋다는 <능엄경>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불상이나 탑 등의 미술사적 입장에서 바깥에 드러난 성보문화재들을 소개한 사찰기행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절을 다니던 우리 조상들이 보던 풍수, 민속신앙 등이 내재된 내부적 시각의 사찰 소개서라는 데서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참 아름다운 도전 1-2

이병철 역음 | 명상 펴냄 | 각권 1만2천원

미완의 혁명가 모자 룩셈부르크, 여성 정치세력화의 기수 에바 페론, 피임시대를 연 선각자 마거릿 썬어, 현대무용 창시자 이사 도라 던컨, 편견에 희생된 천재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 등 20세기를 빛낸 35명 여성들의 치열한 열정과 당당한 삶의 태도를 보여준 책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단 한 순간도 타협이란 것을 용납하지 않고 격동의 20세기를 도전과 변신을 거듭하며 온몸으로 살아낸 그들의 삶을 단지 여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즉 기존의 틀을 과감히 부수고 변혁의 꿈을 이루려는 강한 의지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35명의 여성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순간의 이야기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통쾌하다.

1권의 부제는 '세상을 뒤바꾼 여성들', '시대를 앞선 눈'으로 헤쳐나간 숭한 사연을 만날 수 있다. 모자 룩셈부르크 등 낯익은 이름도 많지만 낯선 인물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차대전 중 스

20세기를 바꾼 빛나는 여성들

탈린을 앵글로 첫 포착하는 등 30~50년대 지구촌 주요 현장을 누빈 사진기자 마거릿 바크화이트, 베트남전선의 첫 여성 중군기자 오리어나 팔라치, 레닌을 감탄시켰지만 혁명이후에는 레닌과 치열한 논쟁을 벌인 볼셰비키 이론가 알레산드라 콜론타이 등의 생애는 그동안 많이 드러나지 않은 볼꽃같은 삶이다.

2권은 '여자가 못할 일이 무엇인가'로서 탐험과 모험에 나선 삶을 다룬다. 좀 거칠게 구분할때 1권이 사상·예술·페미니즘 등 투쟁의 열기가 넘치는 정신의 영역이라면, 2권은 몸을 매개로 한 스포츠의 세계로 흥미롭게 읽힌다.

남자의 고유 영역이었던 스포츠에서 남자가 무색할만한 기록을 남긴 여성들의 발자취를 더듬고 있다.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남극점까지 혼자 걸어가고, 59세에 6,768m의 고봉을 등반한 당찬 여인들의 삶이 이어진다.

이밖에도 '참 아름다운 도전'은 모자 룩셈부르크의 삶을 연대기별로 정리한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곁들여 감동을 더한다. 최초의 여성 에베레스트 정복자인 일본의 다베이 준코를 제외하곤 모두 서양인이란 게 걸린다. 물론 나혜석, 김활란, 모윤숙 등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위대한 여성들은 얼마든지 많다.

책에서 잠시 눈을 떼어 우리 현실을 돌아보자. 여성을 억누르는 관행과 제도들이 도처에 수도룩하다. 여성계에서 꼽는 호주제의 존재가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이렇게 어둠과 싸우는 이들에게 케이트 밀레트가 저서 <성의 정치학>에서 "가정(가부장제)을 파괴하라"고 외친 대목은 큰 힘이 될 것이다.

굳이 이런 각론이 아니라도 '참 아름다운 도전'을 시도했던 여성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호주제가 상징하는 악습들의 수명이 거의 다했다는 느낌을 준다.

김태연(강릉대 여성학 강사)



산중 사찰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바닷가 사찰 김제 망해사 마당은 드넓은 서해로 이어진다. 사진제공=이가서 출판사

생활상담, 최면-전생상담, 빙의치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아래와 같은 각종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 인생문제, 고민에 대해 심리상담전문가이자 최면-전생치료전문가가 직접 상담과 교육을 해드립니다.

- 불안증
- 우울증
- 각종 중독증 (담배, 알코올, 음식, 약물)
- 각종 알레르기 문제
- 비만문제
- 환병 및 각종 신경성 장애
- 업장과 관련한 전생문제
- 빙의 문제

• 상담지도전문가 -

설기문 박사 : 교육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최면 및 전생치료전문가, NLP 전문가, (전)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최면과 최면치료"과 같은 다수의 의전문서적을 저술하였음.

마인드피트니스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1062-2번지
031-442-5598, 011-1762-4598
www.mindcoach.co.kr mindcoach@naver.com

지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116
-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분자
-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넷 설치)
- ◆ 별당, 팔각정자
- ◆ 부대시설 →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식당, 오락실
- ◆ 임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축하합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지정

임석환 선생님의 단청장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문 하 일 동